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0~9/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도법스님의 신심명 강의	도법	불광출판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2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담앤북스	7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정진원	우리출판사
3	딱돌해설서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8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 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9	못다갚을 은혜	월운해룡/신규탁 엮음	운당문고
5	선에서 본 반야심경	대전화상	불광출판사	10	반야심경 주해	무구자/김호귀 번역	중도

책세상

‘석보상절’, 인문 에세이로 만나다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정진원 지음 / 우리출판사
1만8000원

인문학자 정진원 교수 고전 에세이
‘석보상절’ 내용, 탄생 등 쉽게 풀이
현전하는 첫 책인 3권 부분을 다뤄
현대인 반면교사해야 할 교훈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보상절〉은 1447년(세종 29) 수양대군과 김수온(金守溫) 등이 석가모니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편역한 책이다. 전 24권 24책으로 간행됐으나 현재는 총 10권(3 · 6 · 9 · 11 · 13 · 19 · 20 · 21 · 23 · 24)만이 전하고 있다.

〈석보상절〉은 불교사적으로도, 국문 ·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불교적으로는 최초의 한글 번역 경전이고, 내용적으로 당시 불교학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학적으로는 국문 최초 산문집이면서도 풍부한 어휘, 세련된 문장을 보여주고 있어 15세기 국어와 한자음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튀르키예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진원 교수(국립에르지예스대학)는 〈삼국유사〉와 〈석보상절〉 등 한국 고전의 세계화에 천착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 발간된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등 조선 한글대장경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진원 교수가 최근 발간한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현전하는 〈석보상절〉의 첫 번째 책인 제3권을 다루고 있다. 이미 〈석보상절〉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가, 그 뒤를 잇는 이야기인 〈석보상절〉 제3권을 풀어낸 것이다.

〈석보상절〉 제3권의 내용은 싯달타 태자가 태어난 뒤 정반왕이 관상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 사문유관과 6년 고행, 마지막 성도를 위해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



▲저자 **정진원 교수**는? 홍익대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 동국대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튀르기예 국립에르지예스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훈민정음 경전과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강의와 글쓰기에 전념하며, K-Classic 한국학 콘텐츠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일련의 저술 작업을 통해 저자가 주목한 것은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훈민정음 반포 이후 문자로써의 실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첫 책으로 유교 책이 아닌 부처의 일대기 〈석보상절〉을 편찬한 것이다. 그 까닭은 책의 서문인 ‘석보상절 서(序)’에서 일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석보상절〉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라의 말씀을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에 부합하는 실제 상황이요 증거”라고 본다.

이 책의 매력은 ‘석보상절’의 옛 글자 훈민정음 원문을 싣고 이를 현대어로 쉽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진원 교수의 해설은 과거 이야기인 〈석보상절〉를 현재 이야기로 이어내는 징검다리가 된다.

〈석보상절〉은 세종과 수양대군(세조)이 소헌왕후의 극락왕생과 정각을 염원하며 만든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제3권은 싯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는 장면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늙어서 병드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p.133)

사문유관 도중 남문 밖에서의 이 대화를 두고 정진원 교수는 “가난한 시집과 친정의 대소사, 우리 집 대식구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일하셨다. 그리곤 나이 마흔에 그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형 당뇨’라는 병”에 걸려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떠올린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조심하였지만 그 길에 동참하고 말았다”며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번뇌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점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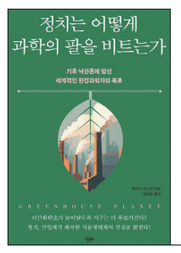
싯달타 태자가 부왕에게 출가선언을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한사코 출가를 막는 부왕에게 태자는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출가하겠다고 답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생로병사)’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四苦) 대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출가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태자의 출가 사유에서 네 번째 괴로움으로 ‘생(生)’ 대신 ‘이별’이 언급된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야 살아가면서 “직접 겪고 있거나 간접 체험으로 그 괴로움을 절절히 알아가게 되지만 그 끝에 ‘이별’의 괴로움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간과하고 살았다”고 토로한다. 근래 부군(夫君)과 아버지를 여읜 저자에게 ‘죽음 뒤에 남는 이별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이별’이든 당사자에게는 모두가 절실한 현재진행형의 괴로움이라는 데서 출가 사유의 의미를 되짚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인도 여행 중 둘러본 싯달타의 고행림이 설산(히말라야)에서 멀리 떨어진 보드가야 인근이었음을 떠올리며 설산(雪山)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같이 묻는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덧 본질은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쳐 물심양면으로 인색해진다든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남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일부러 가시밭길을 걸어 피투성이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또한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석가모니의 팔상 중 ‘설산수도’의 ‘설산’은 ‘설산’이 아니라 ‘고행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설산은 고행림과 같은가, 다른가.”(p.202)

기후 낙관론자 맞선 환경과학자의 폭로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루이스 지스카 지음
김보은 옮김
한문화 / 1만5000원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지구는 더 푸르러진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화석연료 산업계와 보수주의 정권은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산업혁명 덕분에 인간은 식물과 동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날 미래 환경은 환영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의 저자이자 전 미국 농무부 소속 환경과학자인 루이스 지스카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산화탄소가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왜곡된 진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산화탄소의 일부 장점만을 부각하는 정치적 구호,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다’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루이스 지스카 박사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다’라는 논제를 철저히 과학적인 관점으로 파헤친 결과물이다. 그는 먼저 식물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삶의 토대가 되는지를 밝히고 이산화탄소의 순기능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동시에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 및 기온이 상승했을 때 우려되는 이산화탄소의 역기능을 추적하고 검증했다. 익사하는 북극곰, 높아지는 해수면, 강력해진 폭풍 같은 표면적인 현상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위기는 식물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식량 작물은 안전하게 열매를 맺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생물다양성의 질서는 이대로 유지될까? 식물 유래 성분이 바뀌어 오히려 독성과 중독성이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정치, 산업계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먹이라는 한 조각 진실 뒤에 숨긴 거대한 이산화탄소의 위험이 이 책 한 권에 가득하다.

임은호 기자

보다 정의롭고 생태적인 미래 위한 전략



미래는 탈성장
마티아스 슈멜처 외 2명 지음
김현우 외 1명 옮김
나름북스
2만2000원

기후 재앙, 대량 멸종, 팬데믹의 위협,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위기로 만성적인 비상사태가 전개되면서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인류의 삶보다 경제 성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탈성장이 더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여긴다. 이 책은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면서 탈성장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성장에 대한 비판이자 변혁을 위한 제안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성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탈성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 책은 성장을 단순한 GDP의 증가가 아닌 사상이자 관념이고 사회 과정이며 물질 과정으로 서술했다. 점점 더 빠르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며 수많은 자원을 폐기물과 배출물로 남기는, 자연에 대해 팽창하는 사회적 신진대사이자 가속, 확대, 강화의 힘을 서로 키우고 동적으로 안정화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성장을 다뤘다. 아울러 성장 이데올로기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 헤게모니를 쥐게 된 과정을 탐구하며, 성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임노동을 비롯한 생산관계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권력과 위계를 정당화하고 강요하게 되었는지 논의한다. 탈성장 논의 바깥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성장 비판-보수주의자들, 녹색 파시즘, 반현대주의, 부자들의 환경주의도 덧붙여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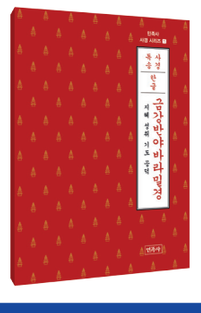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